

# 젠더갈라치기 라는 새로운 합구령을 넘어\*

장소

온라인 줌 Zoom

일시

8월 16일(화) 저녁 7시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니브페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젠더폭력

## 저항하고

## 애도하기

# **[온라인토론회] “젠더갈라치기”라는 새로운 함구령을 넘어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 사 회

### **발제 1**

대학에서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 1

### **발제 2**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의 구성과 젠더폭력 대응 ..... 7

### **발제 3**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 23

[온라인토론회] 질의응답, 토론 ..... 30

[온라인토론회] 홍보이미지 ..... 40

[온라인토론회] 참여신청자의 말들 ..... 43

# 대학에서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

---

---

---

---

---



##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의 구성과 젠더폭력 대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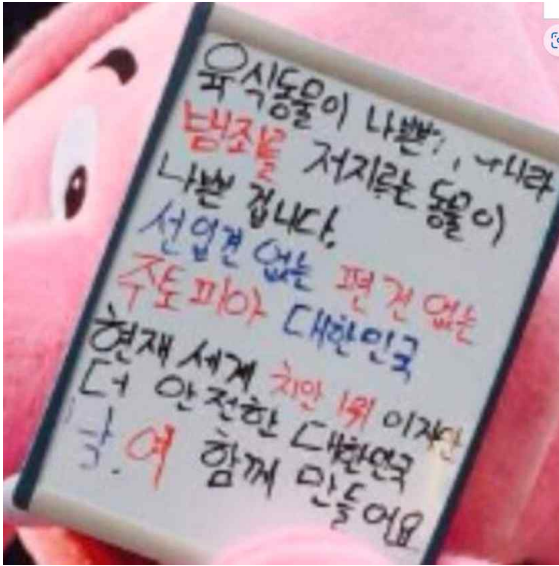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격도야

올바른 사고 판단을 바탕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지·덕·체기 겸비된 조화로운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러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심화시켜 참으로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리탐구

실천적 진리탐구를 통하여 세계적 안목을 갖춘 창의 도전의 인재를 육성한다.

이미 현실로 다가온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우월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용적인 학문분야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봉사

보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 선(善)을 추구하는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동북아의 핵심 축인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창의성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율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체계**

진공 간 벽을 낮추는 융합 L자형 교육체계 도입과 삶의 핵심적 주제에 대한 학제적 탐구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심층적 토론을 통해 협력적 실천 능력 배양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자율교육과정, 학생실계전공과 융합 주제 강좌의 심층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독서 세미나**

동서양 고전을 심층적으로 읽어 인간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적인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웁니다.

•

•

•



•

•

•

•

•

•

•

•

•

•

•

•

•

•

•

•

•

•

##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나가면서,
-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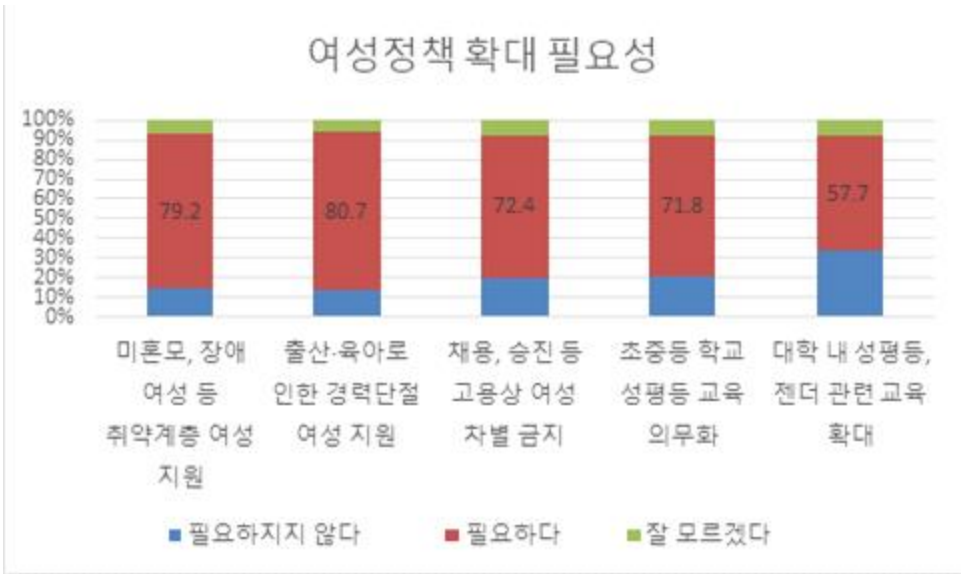
국민께 드리는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2.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3.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li> <li>▪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li> <li>▪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li> <li>▪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li> <li>▪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li> <li>▪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li> <li>▪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li> <li>▪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li> <li>▪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li> <li>▪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li> <li>▪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li> <li>▪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li> <li>▪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li> <li>▪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li> <li>▪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li> <li>▪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li> </ul>

•

•

•

- 
- 
- 
- 



•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 수사 재판기관에서의 준강간 피해자 지원경험을 중심으로-

---



---

---

---

---

## [온라인토론회] 질의응답, 토론























# 젠더 갈라치기 라는 합구렁을 넘어

대학 내 성폭력으로 한 여성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 그의 죽음에 터져나온 대학 내 성차별 공론화 대자보 역시 심사대상으로, '강성페미'의 허튼 소리로 치부된다. 그의 죽음은 어느 언론사들의 수익을 위한 클릭수 뿔튀기 용으로 소비되어 존엄한 영면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세상은 연일 그의 죽음이 '젠더'때문이 아니라고, '성차별'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떠들어댄다. 여성으로서 경험한 폭력을 여성대상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이라고 말조차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목도한 것이 진정 젠더폭력이 아닌가? '젠더 갈라치기'라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저항과 애도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 차별과 성폭력이 공론장에 쏟아져 나오는 걸 두려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애도와 저항만이 승인되는가?

**사회**      **닷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니브페미,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발제

1.

대학 내 성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원정 (유니브페미)

2.

"젠더 갈라치기"라는 함구령,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3.

준강간,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남성아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온라인토론회] 참여신청자의 말들

---





---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라치기”라는 새로운 함구령을 넘어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2022년 8월 16일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 유니브페미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